

종근당, Novartis와 5년 분쟁 승소

대법원, 특허침해 주장 “이유없다” ... 다국적기업 무리한 소송에 제동

국내 제약기업 종근당이 다국적 제약기업 Novartis와의 5년여에 걸친 특허분쟁 끝에 최종 승소했다.

종근당(대표 김정우)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스위스의 다국적 제약기업 Novartis AG와 한국노바티스가 종근당의 장기이식 면역억제제 <사이폴-엔>에 대해 낸 특허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노바티스의 주장이 이유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1999년부터 시작된 <사이폴-엔> 특허침해금지 청구소송은 약 5년여에 걸친 법정공방 끝에 종근당의 최종 승소로 끝이 났다.

종근당은 대법원 판결이 종근당의 독자적인 제조기술을 인정한 것으로, 거대 다국적 제약기업의 무리한 소송에 제동을 건 사례라고 설명했다.

면역억제제 <사이클로스포린>의 국제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Novartis는 1997년 종근당이 개발해 판매를 시작한 <사이폴-엔> 연결캡셀이 약물의 체내 흡수율을 높이기 위한 마이크로에멀전화 기술에 대해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1999년 8월 소송을 냈었다.

그러나 Novartis는 2001년 11월 1심(서울지법 남부지원)과 2004년 1월 2심(서울고법 제5민사부 항소심)에서 잇따라 원고 패소판결을 받은 바 있다.

Novartis의 <사이클로스포린>은 장기이식 및 조직이식 후 나타나는 이식거부 반응을 억제하는 면역억제제로 전세계에서 한해 2조9000억원(약 23억달러)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전체 면역억제제 시장(약 300억원) 가운데 Novartis가 약 200억원, 종근당이 <사이폴-엔> 연결캡셀로 약 10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종근당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은 종근당의 제제기술이 독자적인 것임을 다시 한번 인정한 것으로, 특허권 문제로 그동안 부진했던 국내영업 및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화학저널 2004/06/08>